

원이 라운딩에 참석했다. 신페리오 방식으로 진행된 이 날 경기는 화창한 가을 날씨 속에 회원들의 단합과 친목도모에 분위기가 한껏 고조됐다. 저녁 만찬은 시상식과 함께 이루어졌으며, 이날 우승에는 (주)에가 건축사사무소 이형열 회원이 68타로 우승을 차지했다.

제5회 대한건축사협회장기 전국건축사축구대회 개최



제4회 대회 전경

제5회 대한건축사협회장기 전국건축사축구대회가 10월 16, 17일 양일간 경남 남해 스포츠파크 운동장에서 개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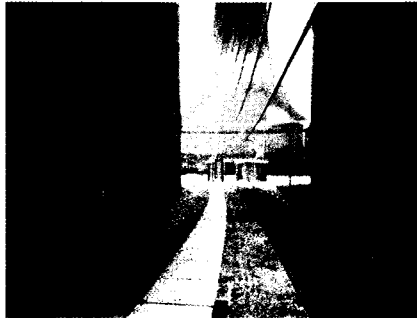
전국건축사축구대회는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전국 건축사 축구동호회 축제로서 이번에는 부산광역시건축사회와 부산건축사동호회가 주관하며 대한건축사축구연합회가 후원한다.

참가팀은 강남, 강원, 광주, 경기, 경남, 경북, 대구, 대전, 마포, 부산, 서초, 송파, 전남, 전북, 제주, 울산, 충북 등 17개 동호회 20개팀, 500여명이 참가한다. 경기는 20팀이 예선리그 4개조 풀리그로 치러지며, 8강과 준결승 토너먼트를 통해 최종 우승을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한건축사축구연합회는 매년 대한건축사협회장기과 대한건축사축구연합회장기를 각각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해 대한건축사협회장기는 충북 충주에서 개최돼 경남건축사축구동호회가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건축계소식

‘다양한 규모의 독일 건축의 세계로 떠나는 여행’ 전시회 개최



‘다양한 규모의 독일 건축의 세계로 떠나는 여행’ 전시회 서울에서 개최된다.

이 전시회는 주한독일연방공화국대사관과 독일건축가협회 산하 건축교류네트워크(Network for Architecture Exchange-NAX)가 주최하며, 2009 서울 디자인 올림픽 기간인 10월 9일부터 24일까지 서울 플라톤 쿤스트할레(Platoon Kunsthalle)에서 개최된다.

엄선된 독일 건축가와 그들의 작품을 선보이게 될 이번 전시회의 전시장소인 ‘플라톤 쿤스트할레(Platoon Kunsthalle)’는 그 자체가 독일 건축가가 해외에서 진행한 프로젝트의 사례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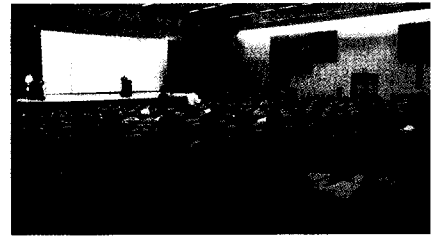
전시는 세 부분으로 나뉘며, 현대 건축의 다양한 규모를 잘 보여줄 있는 방식으로 구성되며, 베를린의 소형 개인주택 프로젝트에서부터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에 이르는 다양한 프로젝트와 해외 프로젝트 기획 과정도 소개된다.

전시의 코디네이터는 차벨 랄프(Ralf Zabel) 독일건축사, 독일건축가협회 건축교류네트워크(NAX)의 한국 주재원이다.

NAX(Network for Architecture Exchange)는 독일건축가협회가 건축가들의 해외 교류를 장려할 목적으로 2002년 설립한 기관이다.

• 문의: ralfzabel@gmail.com,
www.architecturexport.de

‘2009 건축의 날’ 행사 개최



2008 건축의 날 전경

‘2009 건축의 날’ 행사가 9월 25일 오후 2시(기념식 오후 4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가 주관하며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정관계인사, 건축사, 대학교수, 실무종사자, 대사관 등 내외빈 500여 명이 초청돼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행사에는 노들섬, 여수엑스포 국가관 등 국가 주요프로젝트 당선작 작품을 전시한 작품전시회와 조동성 교수(서울대 경영학과)의 초청강연 그리고 공로자 표창, 리셉션, 경품 추첨 등이 열려 어느 해보다 알찬행사가 될 전망이다. 주최 측인 건축 3단체는 이번 행사를 통해 건축인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미래 건축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건축문화의 창달과 건축인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건축의 날은 우리민족의 역사적 건축물인 경복궁 창건일(9월 25일)을 기념해 제정된 건축인들의 기념일로, 미래의 한국건축문화의 방향성에 다양한 정보교류 및 그 공로를 치하하는 의미로 건축 3단체가 하나 돼 마련한 행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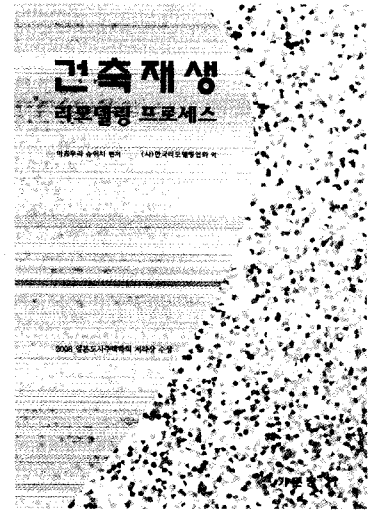
• 문의 : 대한건축학회 사무국, 02-525-1841~4

2009전국건축사미술전 개최



2008 전국건축사미술전 전경

건축재생_리모델링 프로세스



마츠무라 슈이치 편저,
(사)한국리모델링협회 역 | 260쪽 |
도서출판 기문당

신간 '건축재생_리모델링 프로세스'는 급격한 변화의 요구에 직면한 국내 건설업계의 새로운 돌파구인 '건축재생' 즉 '건축물의 개·보수'라는 돌파구에 대해 일본 건설업계의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한 책이다.

역자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우리나라 상황에 맞추어 편역하였으며, 용어는 가급적 일본 원음을 살리되 친숙한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편저자인 마츠무라 슈이치 도쿄대학 대학원 교수와 전문가 집필진이 편저했으며, 일본과 우리나라 상황을 비교한다면 새로운 공법의 습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문의 : 02-2295-6171

'한국건축산업대전 2009'의 부대행사 중 하나로 열리는 '2009 전국 건축사 미술전'이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COEX Hall 'C'(구 대서양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미술전은 대한건축사협회 미술동호회(회장 강성익)가 주최하며 '건축사의 정서가 순수 미술에 대한 일상적 가치를 지니고 있을 때, 보다 좋은 건축을 창조할 수 있다'는 모토로 개최된다. 한국건축산업대전 입장권을 소지한 관람객들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 문의 : 이원희 건축사(주.미공 종합건축사 사무소), 011-9036-7390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개최

서울특별시건축사회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개최하며, 9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교육은 11월 2일부터 11월 17일까지 12일간(60시간) 이뤄지며, 장소는 서초동에 위치한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교육비용은 67만원이다. 자세한 문의는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홈페이지(www.sira.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인텍스 어워드' 수상작 특별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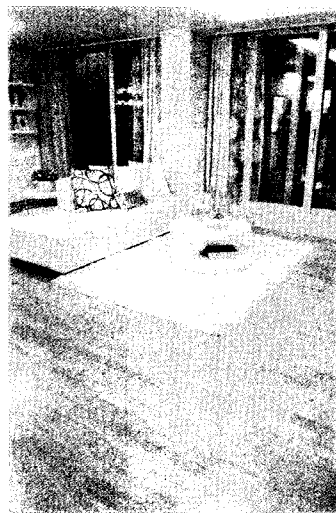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세계디자인수도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세계적 권위의 국제 공모전 '인텍스 어워드 2009 (Index : Award 2009)' 수상작 특별전을 SDO 개최 기간인 10월 9일에서 29일까지 21일간 잠실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 에어돔에서 무료로 개최한다. '인텍스: 더 나은 삶을 위한 디자인 / INDEX: design to improve life'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는 디자인 전문가, 학생 및 시민, 디자인 기업, 문화 및 인권단체 등을 관람 타겟으로 2009년 인텍스 어워드 수상작 69점이 선보인다.

5개 부문으로 이루어진 수상작은 '몸(BODY)을 위한 디자인' 16점, '가정(HOME)을 위한 디자인' 12점, '일터(WORK)를 위한 디자인' 12점, '놀이(PLAY)를 위한 디자인' 7점, '공동체

(COMMUNITY)를 위한 디자인' 22점 등 사람의 일상 생활과 관련된 총 69점의 다양한 작품이 올림픽주경기장 트랙에 설치될 에어돔에서 825㎡ 면적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인텍스 어워드는 덴마크 황실이 후원하는 디자인재단인 '인텍스(INDEX)'가 주관하는 국제 공모전으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디자인 공모전의 하나로써 '더 나은 삶을 위한 디자인'을 발굴하고 지원한다.

KCC, 합판마루 제니아(ZENIA), 금강마루 칼리아(CALLIA) 출시



KCC는 합판마루 시장의 8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특판 시장의 차별화된 공략을 위하여 오크와 티크 등의 전통적인 인기 수종들과 자토바, 카바, 톤그레이 등의 특이 수종이 보강된 합판마루 '제니아(ZENIA)'와 금강마루 '칼리아(CALLIA)'를 갖추고 있다.

고객의 Needs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제품을 다양하게 구성한 합판마루 '제니아(ZENIA)'와 금강마루 '칼리아(CALLIA)'는 출시된 이후 고객들의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합판마루 '제니아'와 금강마루 '칼리아'는 1급 내수합판을 사용한 환경친화적인 제품으로, 제품의 미적인 면과 함께 기능적인 면을 강조하였다. 또한 금강마루 '칼리아'는 고강도 HPM층을 사용하여 우수한 내마모성과 내오염성을 자랑한다.

• 문의처 : KCC 고객상담실 080-022-8200, <http://www.kccworld.co.kr>